

진짜로 믿고 진짜로 공부하려는 마음이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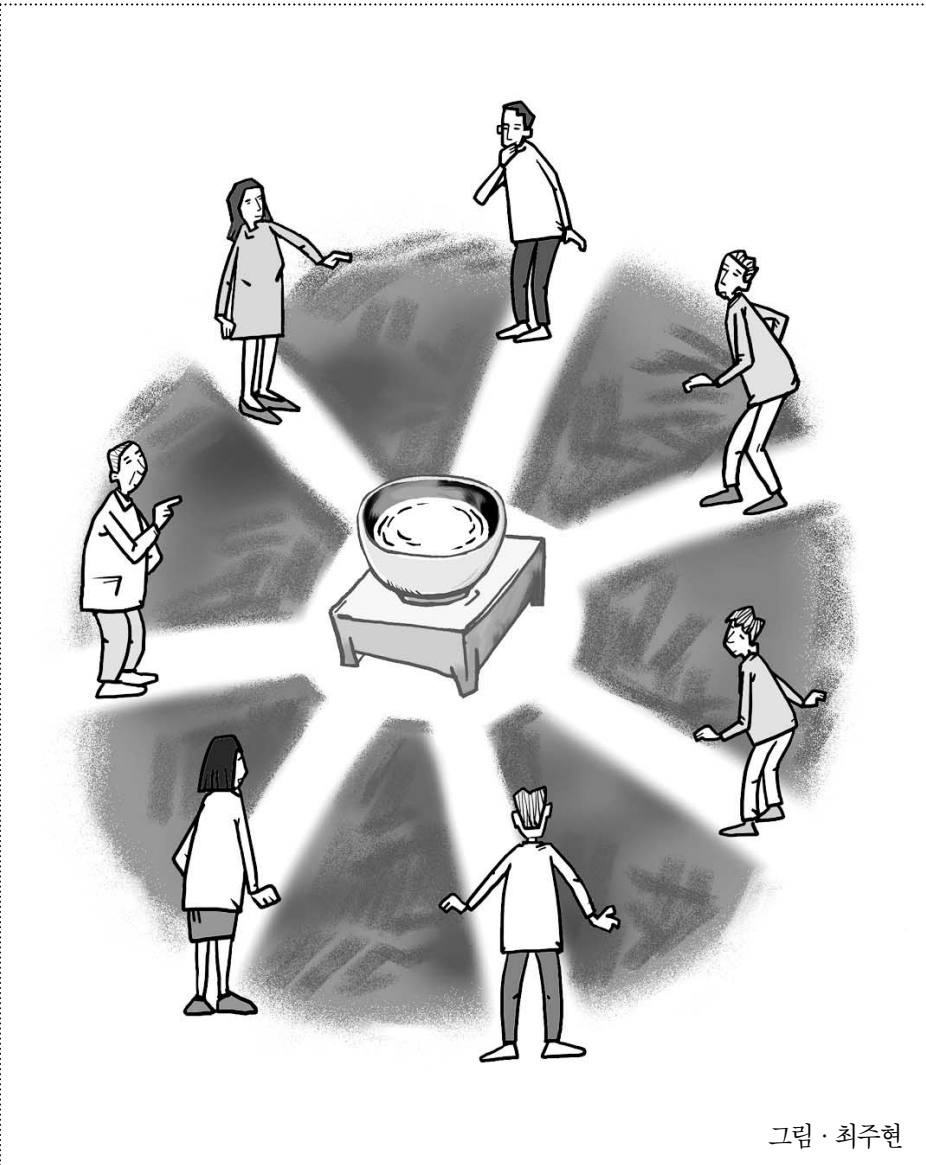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17면에서 계속

▲스님: 허허. 그것도 아니에요.
 ▲질문자3(남): 그것도 아니니까? (대중 웃음) 그 래가지고 쪽 있다가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너는 머리 깎고 스님이 돼야 네 소원을 다 이룰 것이 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그것 도 가만히 연관시켜보면 그것도 틀이 아니기 때문 에 어차피 그러고 가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내가, 불법을 늦게 만났더라도 이 길을 난 분명히 가야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래가지고 가정 정리도 이제 어느 정도 다 따집니다. 이제. (대중 웃음)
 ▲스님: 이거 보세요. 앞의 것을 해결을 못하고, 저 면데 것을 해결하려면 안 되십니다. 그건 자유 입니다. 그렇게 갈 거는 간다 하더라도 지금 막에 가족 있지 않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뭘 찾으러 가 십니까?

▲질문자3(남): 아뇨. 곧 다 됐습니다. 스님은 여 기 앉아서도요, 우리 집 형편까지 다 알고 계시 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 그리고 그 마음에서 지금 그러한 도리 를 아신다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화(化)해서 자꾸 자꾸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됐다 남편이 됐다 이러듯이 그 마음속에서도, 이 주인공 속에서도 그저 이게 됐다가 저게 됐다가, 거지가 됐다가 마 귀가 됐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에 자꾸 속아 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질문자3(남):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요 며칠 전에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두 남매 가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모릅니다. 부아를 돌우 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일이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 해서 내 생각을 했습니다. '요놈, 또 내 화신(化身)들이 나를 속이려구나.' 하고 둘러니까 조용하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스님: 하하하. 예. 참 잘했습니다.
 ▲질문자3(남): 오늘 배터리 보충 멋들어서고 하고 갑니다.
 ▲스님: 하하하.
 ▲질문자3(남): 그리고 제 나름대로 백지 한 장 에 그림 한 장 그려가지고 울산에서 팩스로 보내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림 그릴 것도 없습디다. 잘하고 가시 는군요. (삼배를 올리는 질문자를 향하여) 한 번만 해라.
 ▲질문자4(남자 어린이): 스님, 한마음 내어주세 요.
 ▲스님: 왜?
 ▲질문자4(남자 어린이): 주인공 공부 열심히 하 려고요.
 ▲스님: 오. 좋았어. 응. 그래. 한마음을 내달라

지도 못했다고,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그냥 갔지. 3분이 안 돼서 목이 개어서 밥을 먹었다는 거 야. 이렇게 좋은 법을 모두들 왜들 안 하십니까. 자기 자성신(自性神)은 외면하고 타신을 만날 믿 고 묵묵 두드리고 생각하고 해달라고 하고 온통 야단법석들이나, 부처님이 사십구 년 설하고 가 르쳐주신 길은 어디 가서 찾죠?

▲질문자6(남): 저는 지금 자연과학을 대학원에 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자 연과학을 공부하다보니가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의문이 많이 있었는데 불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진리를 얻는 방법이 세상에 있습니까?
 ▲스님: 이 불법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영원한 생명의 근 본이 불(佛)이야. 어떠한 법에도 생명이 있으니까 불이야. 그래서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운용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 법이야. 생활이 그냥 법이야. 그러니까 불 법이야. 너의 생명 근본, 영 원한 근본, 근 본이 자 생활 이지. 그런데 어떻게 그 생 활을 벗어나 서 불법이 있 을 수가 있냐? 모두가 불법인데, 불법 아닌 게 하 나도 없는데.

어떠한 거든지 걸려서는 안 된다 그대로 놓고 가라!

고 안 해도 네 마음으로 한마음을 내면은 한마음 이 된다.

▲질문자5(남): 저는 경남 울산에서 왔습니다. 저의 안식구가 한두 달 전부터 원인 모르게 어지 립고 일어나지를 잘 못하고 이래서 울산 부산으 로 여러 병원을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별 검사를 다 해도 아무 이상도 없다고 하는데 이 원인이 과 연 어디 있는지 몰라서 좀 알아보려 왔습니다.
 ▲스님: 허허허. 선생님이 모르시는 걸 내가 어 쩌 알니까마는 하여튼, 처음 오셨습니까?
 질문자5(남): 예.
 ▲스님: 그러면 오늘 관하는 것만 알고 가신다 면, 여기 주지 스님한테 들어서 관하는 것만 알고 가신다면 오늘 저녁부터라도 나올 수 있는데이 요. (대중 박수)
 ▲질문자5(남): 예. 울산 지원에서 스님들이...
 ▲스님: 그렇게 알고 가십시오. 이따가, 예.

저 원주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저 답살리 그 집 남편이 교육감 노릇 할 때죠. 답곡방이 하나 있거 든요, 그 집이. 거기를 들어가니까 별안간에 그냥 허우적허우적 어떤 사람이 오더니마는 그때 뇌영 이 한창 많이 걸릴 때인데 애가 뇌영이 걸렸는데 그냥 몸을 비틀고 그렇게, 모두 병이 걸린 애들이 20명 된대요, 병원에. 그런데 우리 애도 그렇게 됐다면 그 그랬는데, 그때는 이 관법을 가르쳐주

그래서 인간은 맨 나중에 나왔다 하지,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불성 없는 것은 없어. 생명이 있다 하 면은 다 불성이 있는 거지.
 ▲질문자6(남): 알았습니다.
 ▲스님: 그래서 이런 것도 (물컵을 가리키시고) 컵도 이것이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 결이 되고 인연이 돼서 이것도 살아 있는 거지. 컵 이라는 거를 봐주고 써주는 인연이 있고, 물을 담 고 이렇게 써주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살아 있는 거죠. 이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거예요. 움직여주고 있다고요.

▲질문자7(여): 오늘 스님을 뵈어서 영광입니 다. 저는요, 공부를 좀 하고 싶는데 목이 자꾸 말 을 안 들어서 이러는데 스님, 조금만 용기를 좀 주 습소서.
 ▲스님: 몸하고 마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 까, 공부하는 데. 물론 이 목이 아프면 마음이 허 황돼지고 그렇게 되지만, 진짜로 믿고 진짜로 공 부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아픈 것도 거기서 나 온 거니까 거기다가 그냥 맡겨버리고 그대로 '네 몸뚱이, 네가 형성시킨 네 몸뚱이 내가 끌고 다니는 건데 건강하게 끌고다니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하고 거기다 맡겨 놓고 가는 길이 지 뭐 공부하는 데 무슨 뭐가 그렇게 걸립니까?
 ▲질문자7(여): 예. 조금만 용기를 주옵소서.
 ▲스님: 용기를 누가 주고 자시고 할 겁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 이것을 하는 데 대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어떤 한 게 딱진다 하더라도 재료로 알고, 공부하는 재 료로 알고 어떠한 게 딱혀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발전하는 데 기본적인 모든 재료다.' 이렇게 생각 하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해나간다면 정말 용기 잃 지 않게끔 빌어줄 겁니다. 모두가 말입니다. 그리 고 이 공부란 정말이지 역대의 조사들과 부처님이 그렇게 일컬어서 길을 인도하신 이 마음의 공부입 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공부를 해나가 면서 체험하고 나가다보면 이 세상살이가 전부 팔 만대장경입니다. 어떻게 다 써놓겠습니까? 과거도 미래도 변치 않고 오늘날도 공해서 돌아가는 이 자 체, 이 진리가 그대로 팔만대장경인데...
 ▲질문자7(여): 예. 조금만 용기를 주옵소서.
 ▲스님: 용기를 누가 주고 자시고 할 겁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 이것을 하는 데 대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어떤 한 게 딱진다 하더라도 재료로 알고, 공부하는 재 료로 알고 어떠한 게 딱혀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발전하는 데 기본적인 모든 재료다.' 이렇게 생각 하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해나간다면 정말 용기 잃 지 않게끔 빌어줄 겁니다. 모두가 말입니다. 그리 고 이 공부란 정말이지 역대의 조사들과 부처님이 그렇게 일컬어서 길을 인도하신 이 마음의 공부입 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공부를 해나가 면서 체험하고 나가다보면 이 세상살이가 전부 팔 만대장경입니다. 어떻게 다 써놓겠습니까? 과거도 미래도 변치 않고 오늘날도 공해서 돌아가는 이 자 체, 이 진리가 그대로 팔만대장경인데...
 ▲질문자7(여): 예. 조금만 용기를 주옵소서.
 ▲스님: 용기를 누가 주고 자시고 할 겁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 이것을 하는 데 대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어떤 한 게 딱진다 하더라도 재료로 알고, 공부하는 재 료로 알고 어떠한 게 딱혀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발전하는 데 기본적인 모든 재료다.' 이렇게 생각 하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해나간다면 정말 용기 잃 지 않게끔 빌어줄 겁니다. 모두가 말입니다. 그리 고 이 공부란 정말이지 역대의 조사들과 부처님이 그렇게 일컬어서 길을 인도하신 이 마음의 공부입 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공부를 해나가 면서 체험하고 나가다보면 이 세상살이가 전부 팔 만대장경입니다. 어떻게 다 써놓겠습니까? 과거도 미래도 변치 않고 오늘날도 공해서 돌아가는 이 자 체, 이 진리가 그대로 팔만대장경인데...
 ▲질문자7(여): 예. 조금만 용기를 주옵소서.
 ▲스님: 용기를 누가 주고 자시고 할 겁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 이것을 하는 데 대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어떤 한 게 딱진다 하더라도 재료로 알고, 공부하는 재 료로 알고 어떠한 게 딱혀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발전하는 데 기본적인 모든 재료다.' 이렇게 생각 하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해나간다면 정말 용기 잃 지 않게끔 빌어줄 겁니다. 모두가 말입니다. 그리 고 이 공부란 정말이지 역대의 조사들과 부처님이 그렇게 일컬어서 길을 인도하신 이 마음의 공부입 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공부를 해나가 면서 체험하고 나가다보면 이 세상살이가 전부 팔 만대장경입니다. 어떻게 다 써놓겠습니까? 과거도 미래도 변치 않고 오늘날도 공해서 돌아가는 이 자 체, 이 진리가 그대로 팔만대장경인데...
 ▲질문자7(여): 예. 조금만 용기를 주옵소서.
 ▲스님: 용기를 누가 주고 자시고 할 겁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 이것을 하는 데 대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어떤 한 게 딱진다 하더라도 재료로 알고, 공부하는 재 료로 알고 어떠한 게 딱혀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발전하는 데 기본적인 모든 재료다.' 이렇게 생각 하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해나간다면 정말 용기 잃 지 않게끔 빌어줄 겁니다. 모두가 말입니다. 그리 고 이 공부란 정말이지 역대의 조사들과 부처님이 그렇게 일컬어서 길을 인도하신 이 마음의 공부입 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공부를 해나가 면서 체험하고 나가다보면 이 세상살이가 전부 팔 만대장경입니다. 어떻게 다 써놓겠습니까? 과거도 미래도 변치 않고 오늘날도 공해서 돌아가는 이 자 체, 이 진리가 그대로 팔만대장경인데...
 ▲질문자7(여): 예. 조금만 용기를 주옵소서.
 ▲스님: 용기를 누가 주고 자시고 할 겁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 위 법문은 1990년 8월 19일 특별법회에서 설 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 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통따주기지지도사 강좌 (2박3일) 안내

- 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제 시 엄지손톱 뿌리 밀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 따주기의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합니다.
 -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키고, 나쁜 피는 사혈합니다.
 - 월 1회 따주기로 사전 건강관리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알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 학생지도(고교생, 대학생)
 - 신도 포교
 - 따주기 사회봉사
 - 전통따주기지지도사로 활동
- 따주기로 건강관리 범위**
 - 뼈 및 수술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분야
 - 마음과 육신
- 강좌 인원**
 - 선착순 20명(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직접강의)
- 9월 강좌일**
 - 2006. 9.8(금) ~ 10(일)
- 특전**
 - 18시간 교육이수 후 수료증 수여
 - 교재 · 사혈기 및 필수 부항 · 펌프 보시
- 강좌문의 054)637-3477**
(장소: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내)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

六壬 · 命理 最高位課程 募集

진리는 단순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으면 학문이 아닙니다. 실천감정을 통한 천고비전을 전수하고자 합니다.

입학안내

- **제출서류:** 입학원서(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4매
- **모집인원:** 00명
- **수강료:** 30만원
- **교육기간:** 12주(3개월)
-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六壬 오전 10시 ~ 12시 命理 오후 2시 ~ 4시
- **개강일:** 2006년 9월 5일
- **접수문의:** 한성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과 02)766-1321~2 담당교수 011-524-1080 / 011-1763-3567
- **특전**
 - 전 과정 수료 시 한성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명의 수료증 수여
 - 한성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청동문화 회원
 - 본 교육 수료 후 관련 자격증 취득 (단, 자격증 취득 시 소정의 비용은 본인 부담)

서울시 종로구 숭인1동 556 수석빌딩 3층
한성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www.hsde.ac.kr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 행자 모집

복(福)중에서 발심공덕이 으뜸이라 하였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에서 출가하여 사홍서원의 인력을 세우며, 상구보리 화화중생의 뜻과 미주포교에 원력을 가진 발심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 무량사 행자 자격**
 - 연령 15세 이상 55세 이하
 - 교종 또는 동종 이상의 학력 소지자
 - 미국비자 발급에 걸적사유가 없는자
 - 조계종 중법에 의거 승려생활에 걸적사유가 없는자
- 연락 이메일:** muryangsa@empal.com

* 무량사로 출가한 행자들은 미국의 정규대학에서 불교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